



제 4회 Solo Exhibition
건축가 **김억중**의 인테리어 소품전 2011

愛物_{VS}碍物_{사이}

퇴물들의 화려한 귀환

2011.10.21-10.27

갤러리 PEN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4-9 올림푸스타워
연락처 : 02-6255-3302



Bonding memories





2010년 '애물단지' 개인전 이후로도 여전히 저의 화두는 애물입니다. 잘 쓰던 물건을 버릴 때까지 사물들의 생애와 자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업은 '愛物과 碍物사이', 정년을 맞은 사물들에 대한 시름과 연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평생 효율과 기능으로만 평가받아 왔다가 어느 날 용도폐기 처분당한 사물들에게서 한 시절 꽃다운 청춘, 그 숨겨진 아름다운 몸매와 디테일을 늘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을 접고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보내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사물들 앞에서, 이젠 훌훌 털고 늦바람이라도 나라고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게로 와 자유를 얻어라!

제가 한 일이라곤 사물들의 저마다 지니고 있던 그 타고난 미학적 자질을 오디션해서 이들을 전 방위로 헤쳐 모여 짝을 짓고 bonding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호적은 지워졌고, 고향은 가가스로 알아볼 정도입니다. 신분은 세탁되어 본래 주인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환골탈태한 셈입니다. 사물들의 황혼을 지켜보며 이들이 다시 한 번 집안 깊숙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대접받으며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시회에 오셔서 퇴물들의 화려한 귀환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Bonding memories 1

G. Bachelard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라 했다.
 하지만 그 공간을 기억하게 하는 단서는 무엇까?
 그 공간을 감싸며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했던 '형태'의 느낌일 터.





Bonding memories 2

15세기 도시국가 피렌체(Firenze) 정부에서는 시민 수천명을 거대한 그늘 아래 드리울만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Santa Maria del Fiore)의 지붕 구조물 두오모(Duomo)를 설계 공모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는 그 간절한 공공의 염원에 직능을 다해 보답했다.

놀라운 것은 주변 국가들이 피렌체를 넘보려 쳐들어 왔다가도 두오모의 위용에 화들짝 놀라 전의를 상실한 채 물러섰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두오모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진정한 자존심과 시민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탄탄한 정신적 기반 위에 르네상스 문화예술이 부흥하였고 경제가 살아나 꽃의 도시, 피렌체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도 골목골목 뜬금없이 나타난 배트맨처럼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곤 하는 두오모! 600년 세월은 그렇게 이어져 지금도 저마다 마음속에 그려진 길을 따라 추억의 인장을 찍으러 가는 세계인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건축은 추억의 질료요 에너지원이다.

82년 늦은 여름쯤 이었던가. 붉은 해로 물든 도시가 길은 실루엣을 드러내며 서서히 어둠과 교감하기 시작할 무렵, 피렌체 외곽 피에솔레 언덕에서 바라보았던 두오모와 그 공공의 거대한 그늘은 내 뼈 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 그 장대한 스케일의 서늘했던 회상은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다워 내겐 오히려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언젠가부터 바람과 함께 펄럭이는 깃발처럼 가슴속에 나무끼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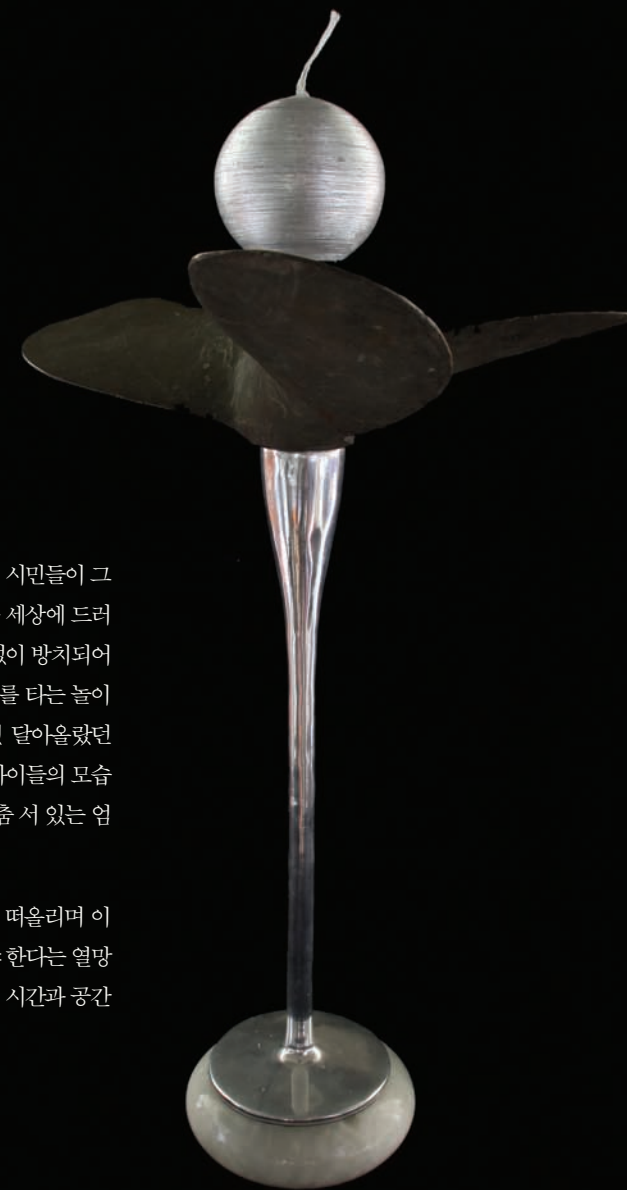




그리고 30년이 지난 올 여름 대전 엑스포광장에 수천명 시민들이 그
 늘 속에 함께 기거할만한 거대한 무빙쉘터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
 내기에 이르렀다. 93년 엑스포가 끝난 후 별다른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던 광장을 시민들 스스로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낮 동안 한껏 달아올랐던
 아스팔트 광장의 열기 속에, 땀 흘리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과 아이들 극성에 못 이겨 따라 나와 벌 받듯이 엉겨주춤 서 있는 엄
 마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2만불 시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품위와 자존심을 떠올리며 이
 곳에도 도시 스케일에 걸 맞는 커다란 그늘을 드리워야 한다는 열망
 으로 설계였던 추억이 새삼스럽다. 두오모와 무빙쉘터, 시간과 공간
 을 덮는 거대한 그들의 전염이 아니고 무엇인가!

Bonding collective memories!



Bonding memories 3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모양이었다. 계룡산 자락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단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자마자, “이건 운명이다” 라고 되뇌며 끝내 일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그 건물은 원래 단무지 공장이었으나 문을 닫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 폐허 직전의 상태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사방에 쓰레기가 덮여있고 썩는 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나는 물 고인 웅덩이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을 발견했던 셈인데, 남아 있던 골조가 워낙 건실하고, 가격도 그만 하면 저렴한 편이었으니 리모델링만 잘 하면 로프트하우스로 거듭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었다.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다 바로 옆집도 공장이어서, 증축 부분도 주변과 어울리도록 공장 스타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단무지 공장을 건축설계 공장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마치 어떤 기계를 만들려면 그것을 짚는 기계가 있어야 하듯이, 이 집이야말로 ‘생각의 집’을 짓는 공장이었으면 했다. 그 안에서 설계하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렇게 겉으로 보아서는 공장이지만, 집안으로 들어오면 작은 동네처럼 곳곳에 길이 있고 마당이 펼쳐지도록 구성하였다.

그 덕분에 부모님 결혼 70주년 행사를 이 집에서 멋지게 치룬 바 있다. 그 당시 로프트하우스 안에 새로 만들어진 길과 마당이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띄우는데 크게 한 몫을 했었다. 11월 초여서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바깥마당에서는 찜뽕찌뽕 지축을 흔들어대는 사물놀이패와 걸쭉한 농지거리가 곁들여진 외출타기 공연이 있었고, 이어 모두가 춥고 배가 고플 즈음 집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장터국밥 거리로 변신한 로프트 안마당에서 요기는 물론 뒤풀이까지 한껏 즐길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가능한 한 값싼 재료, 소박한 재료들을 쓰되 기존 건물의 마감 재료와 소통을 이루어 모두가 제 몫을 다하는 고귀한 존재로 등극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테면 1층 구조물 기둥 사이를 구멍이 숭숭 난 콘크리트 블록으로 채웠고, 각 아틀리에 사이의 칸막이벽은 거친 시멘트 벽돌을 쌓은 후, 백색 수성페인트를 칠해 기존의 노출 콘크리트 천장과 대비를 이루었다. 그저 공장스타일에 충실했을 뿐 그리 값비싼 재료들이 아니지만 모두가 그 자리, 그런 모습으로 손색없이 옛것과 새것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기존 건물을 감싸는 철골 구조물도 솔직하게 노출하였고, 외관을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하여 기존구조물의 육중함과 철골구조물의 경쾌함의 대비를 꾀했다. 그 대비에 힘입어 시꺼먼 전선줄이 벽면을 가로질러도 전혀 흠집처럼 보이지 않을만한 구성(構成)의 힘을 얻었다. 흔히들 경량철골 구조에 샌드위치판넬로 집을 지으면 값 싸게 보인다는 편견도 여기서는 괜한 우려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재료에 귀천이 있을 까닭이 없을 뿐더러, 무슨 재료든 쓰는 이의 솜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작 비싼 것은 재료가 아니라 생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값싼 재료조차 그 매력을 맘껏 발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로프트하우스에서 맘껏 펼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다.

그러고 보면 로프트하우스의 최고 덕목은 아무래도 "손때보다 더 아름다운 장식은 없다"는 미학적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새로운 기능을 담기위해 첨가해야할 모던(modern)한 것과 상생하되, 옛것의 흔적들을 애써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가치로 되살린다는 점이야말로 로프트하우스의 진정한 매력이라 할만하다. 추억은 집속의 집에 그 전설의 내밀함을 더해가는 법.

Brooding moment

작년에 준공한 애일헌(愛日軒)은 또 어떠했던가. 나는 기문을 이렇게 적었다.

그 집에서 나는 삶의 계율을 익혔습니다. 동그랗게 깎인 사과와 심장을 맞보았습니다. 불가사의한 가족의 현. 그 나즈나긋한 길드들을 호흡했습니다. 라고 했던 시인 김상미의 그 집처럼 집은 소중한 추억의 사원입니다. 가족 모두가 집안의 집을 저마다 가슴 속에 묻어둔 터이니, 집은 대체 몇 겹으로 둘러 싸여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두렵습니다. 매번 집을 설계하고 짓는다는 것이... 그 불가사의한 가족의 현에 눈물점도록 그리움을 새기는 일이므로...

전주인이신 안교수 내외분을 생각하며 이 집엔 어떤 그리움이 새겨질지를 상상해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분이 농암(龍巖) 이현보(李賢輔, 1858)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은 애일당이라는 집을 짓고 당호에 담긴 뜻처럼 추억을 아껴 어머니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려 했던 것인데, 어머니 생전에 단 한 순간이라도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만들어 드리고자 했던 그의 성심공양(誠心公養)을 감복해 마지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그랬는지 모르니까~ 집안 곳곳에 눈만 돌리면 창밖으로 이어지는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의 각별한 관계가 감상미 시인이 그 집에서 사과의 심장을 맛보았던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 보고 느끼고 배우며 살아가는 묘미와 추억을 한층 더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집주인께서는 집의 미학,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매 순간 애일의 뜻을 기려 가족, 이웃과 더불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의 사원으로 대대손손 이어가길 염원하면서, 이를 애일현 기쁨으로 현정하는 바입니다.



비록 대상은 다르겠으나 농암선생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려 했던 것처럼 안교수 내외분이야말로 주님을 어머니처럼 가까이 모시면서 공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니, 애일현을 당호로 삼아 그 뜻을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대둔산 수락계곡 자락에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하늘에 대한 경외와 땅으로 이어지는 겸손을 배우고, 그 깊고 커다란 품에 기대어 평화와 안식에 기거하며 천상의 아름다운 삶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데 어찌 한 치의 시간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집주인께서는 이 집에 드나드는 이들 또한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이웃들이니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애일의 뜻을 기꺼이 펼쳐야 할 소명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터입니다. 하여, 좋은 찾아오는 이웃들의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요, 그들은 그와 달리 가족의 성전으로서 좀 더 내밀한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마당의 위능을 열어 천장 아래로 떨어지는 빛과 그림자는 하루 종일 변신을 거듭하며 집주인으로 하여금 빛이 오는 근원을 향하여 시시각각 애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보게 합니다.















Bonding memories 5

떠돌음의 황량, 그들의 생애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그리 편치도 유쾌하지 않았다. 아니 서를 뿔다. 초이남이 날 버리는 건 한 순간이었지. 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설레었던 기억조차 잊은 지 오래 됐어. 몇 날 며칠을 고물고 임마를 줄라기 어이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그가 얼마나 행복에 겨워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건만... 하지만 그것도 잠깐. 어찌 보면 우린 태어나자마자 애물단지지 뭐. 어쨌든 내 서를 본 생애도 이제 시다 바리 끝이 아닌가. 라는 사물들의 하소연을 들곤 했다.



저기저담벽. 저기저라일락. 저기저별. 그리고저기저우리집개의똥하나. 그래.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 에. 시. 라. 담. 벽. 은. 내. 언. 어. 의. 담. 벽. 이. 되. 고. 라. 일. 락. 은. 내. 언. 어. 의. 꽃. 이. 되. 고. 별. 은. 반. 쪽. 이. 고. 개. 똥.
 은. 내. 언. 어. 의. 뜰. 에. 서. 굴. 러. 라. 내. 가. 내. 언. 어. 에. 게. 자. 유. 를. 주. 었. 으. 니. 너. 희. 들. 도. 자. 유. 롭. 게. 서. 고. 앉. 고. 반.
 쪽. 이. 고. 굴. 러. 라. 그. 래. 봄. 이. 다.”
 (오규원, *가꿈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이. 딱. 한. 것. 들. 이. 동. 네. 한. 구. 석. 이. 나. 고. 물. 상. 그. 도. 아. 니. 면. 골. 동. 품. 가. 게. 에. 서. 평. 생. 끝. 의. 한. 숨. 을. 토. 해. 내. 고.
 있. 을. 때. 마. 다. 내. 스. 스. 로. 다. 집. 했. 었. 다. 내. 모. 두. 를. 다. 거. 둘. 수. 는. 없. 지. 만. 이. 땀. 게. 든. 너. 희. 들. 의. 새. 삶. 을. 약. 속.
 하. 겠. 노. 라. 고.



그래 모두가 이리와 내 손 끝에 자유를 찾고 몸을 맡아라. 이젠 세상 사람들이 네게 기대하고 실컷 부렸던 그 쓸모와 이를조차 다 벗어버려라. 네 거추장스러웠던 몸도 산산이 부서버려 좋은 추억과 정겨웠던 손때를 기억하며 너희들끼리 헤쳐모여 또 다른 몸으로 거듭나라. 내 기어이 너희들의 황혼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테다. 웬만한 짐거실이나 잘 보이는 곳에 너희들의 등지를 트게 할 것이다. 거기서 네 몸에 불을 켜고 또 다른 생애를 시작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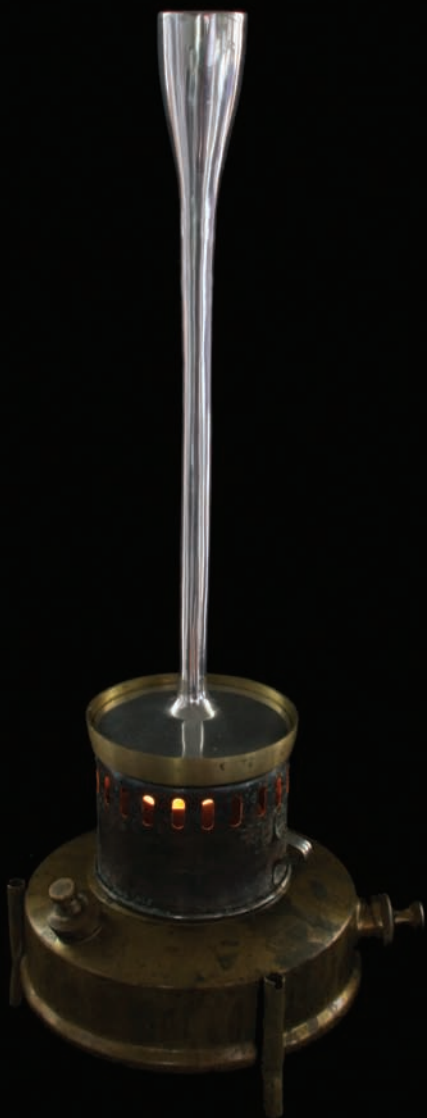
모두가 유배지에서 살아남은 너희들의 화려한 귀환에 갑작스럽게 될 것이다. 공간을 휘어잡을 만큼 네 멋진 몸매를 맘껏 뽐내며 너로 인해 주변이 환해질 수 있길 바란다. 너희는 원래 그럴만한 자질을 타고 태어났으니 이젠 평생을 대접받으며 명품으로 살아가라. 그리하여 아픈 흔적마저 아름다운 장식의 일부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호적을 열심히 지워내고 인연 따라 너희들의 파편화된 과거를 돌아갈 bonding 주마.





Bonding memories 6

추억은 늘 연약한 것. 내동맹이 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쩔 수 없이
깨졌다면 조각조각 다시 bonding할 수 있도록 본래 모습을 잘 기억하라.
그것이 사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글: 김민중)







김억중(金億中)

1955년 가부장적 가풍 아래 팔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25세가 다 되도록 형이나 누나들이 잘 닦아 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으니 백수천하가 따로 없었다. 사춘기 시절 음주, 흡연이나 가출 같은 객기 한번 못 부려보고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메마른 영혼에 푸석푸석한 몸만 키웠을 뿐이었다.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문의 영예(?)를 위해 대입경쟁의 대오에 뛰어들어야 했고, 1974년 식발재수를 마다하지 않은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께서 크게 기뻐하실만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운명이라니 건축과에 들어갔지만, 거리 곳곳에 화염병이 날아들던 허수상한 시절 덕분에 수업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영겁결에 학사모를 쓰고 말았다. 사도신경처럼 외워야 했던 교과서가 바람막이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늘 누군가가 곁에서 절반 이상의 고민을 함께 했던 요점정리의 시절, 문학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황량하기만 했던 별관에 서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술렁이기는커녕 태평하기만 했고 친구로부터 시집 한 권을 선물 받고도 그 속에 깊은 샘이 파여 있는 줄도 몰랐다.

1980년, 어쩌다 행운이 찾아들어 유학의 길에 올라 생애 처음으로 별거벗겨진 자신을 응시하면서 비참하기 그지없는 부끄러움도 알았고, 세상을 바라다보는 관점이 그리도 넓은 줄 알게 되었다. 잔머리와 손재주만으로 설쳐댔다가 혼쭐이 난 이후로, 속은 더 이상 비워내고 자시고할 것도 없을 만큼 텅 비어있었으니, 다잡아 공부할 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으랴 싶었다. 설게 과제 빼놓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으므로, 음주가무는 고사하고 두문불출 책과 씨름하며 늘 수밖에 없었던 6년 동안의 독락당 시절. '생각을 짓는 것이 곧 건축'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문학이 영혼의 뜰 안에 깊숙이 찾아왔던 것도 청춘이 저물어가는데 그 무렵이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 집과의 끈질긴 인연을 들추어내는 문학이 있어 건축이 가야할 길이 바로 보였다.

1986년, 벼랑 끝 유학을 마치고 고향 대전으로 돌아와 26년째 후학들을 가르치며, 오늘도 서권향 가득한 작업실에 파묻혀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찾아 고전 문헌을 뒤적이다가 손이 근질근질하면 애플들과 씨름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뒀던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보느라 여념이 없다.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건축가 diplome
-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Assistant
-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공학박사
- 현재 한남대학교 건축과 교수

저술

- 건축가 김억중의 읽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동녘, 2003
- 나는 문학에서 건축을 배웠다, 동녘, 2008

개인전

- 제 1회 이주미술관, '기호의 힘' (2004)
- 제 2회 KBS 홀, 갤러리이안, '모델하우스' (2007)
- 제 3회 갤러리이안, '애물단지' (2010)
- 제 4회 갤러리 PEN, '愛物vs碍物사이' (2011)

주요 건축작품

- 유성구 문화원(2002)
- 대덕 이주미술관(2003)
- 주택연작 : 공주 어사재, 논산 수경당(2006), 논산 사미헌, 천안 완락재(2008), 대전 무영당, 광주 사가현(2009), 논산 애일헌(2010)
-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재창조 사업 (무빙쉘터, 미디어 큐브 및 야외공연장 2011)

- 블로그 : <http://blog.yes24.com/kuj725>
- 카페 : cafe.daum.net/ANU2011
- 연락처 : 010-8252-7553



건축가 김억중의 인테리어 소품전 2011

愛物vs碍物사이 - 퇴물들의 화려한 귀환

2011.10.21-10.27 갤러리 PEN